

되는데 시험과목은 建築計劃과 建築設計인데 건축설계과제는 80~150 병상규모의 綜合病院이다.

그리고 특별전형자 460명은 한양대학교에서 80~150 병상규모의 綜合病院建築設計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 시험과목 및 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건축사자격 2차시험 (일반전형)	○건축계획 (오전)	10:00-11:25 (85분)
	○건축설계 (오후)	13:00-18:00 (5시간) 연속시행
특별전형 실기시험	○건축설계 (오후)	13:00-18:00 (5시간) 연속시행

大都市에 大型빌딩新築 抑制

서울地域 再開發사업도 縮小조정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빌딩 신축을 크게 억제하기로 했으며 政府廳舍등 공공기관의 건물신축 계획도 88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經濟企劃院은 최근 서울의 경우 도심지 대형빌딩신축의 과잉으로 사무실이 많이 남아돌고 이부분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빌딩신축을 가능한한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目標爲主再開發事業推進을 지양, 올해안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28개지역의 재개발계획도 대폭 축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新規許可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올 서울의 재개발사업을 10여개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들의 대형빌딩신축이 크게 늘어 도심지 신축빌딩의 30% 이상이 입주자가 없어 비어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형건물신축억제방침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각부처의 건물신축은 88년이후로 미룬다는 원칙을 고수, 청사신축에 필요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建築士자격 2차시험 9월 1일實施

建設部, 弘益大 서울시立大 漢陽大서

建設部는 85건축사자격 제2차시험(특별전형포함)을 오는 9월 1일 홍익대학교의 서울시립대학,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2차시험은 일반전형 1천16명이 홍익대학교의 서울시립대학에서 치르게

으로 舊會館이 헐린이후 이곳저곳으로 사무실을 임대사용해왔다.

集團에너지供給体制 大폭擴大

再開發신축물·密集아파트團地 대상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도시재개발지역과 대형 신축 건물지역에 대해 빌딩구역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오는 87년부터는 大邱이북의 기존 밀집아파트지역과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지역엔 지역난방시설을 시행토록 하는 등의 집단에너지 공급체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動資部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를 위해 열효용성이 높은 大邱이북의 건물밀집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확대는 우선 추진대상으로 서울의 강남구 開浦地區·강동구 蠶室地區·高德地區·押鷗亭地區등 4개지역과 경기도 인천의 朱安地區와 果川地區등 2개지역을 선정, 이지역의 인구과밀지역 및 빌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7년부터 집단에너지공급체제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과 인천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시스템도입 타당성 조사를 내년 또는 내년 2월까지 각각 완료, 86년말엔 기본설계등을 끝낼 계획이다.

또 신규아파트지역은 내년 신규택지개발계획을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대상지역을 확정, 단계적으로 지역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건물밀집지역에도 熱供給費用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서울의 28개 재개발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86년부터 서울시재개발사업및 건축허가시에 이를 반영, 서울을 중심으로 빌딩냉·난방사업을 추진, 점차 타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動資部는 여의도지역에 이어 앞으로 인근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地域煖房事業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建築審議 끝나면 「모델하우스」 建立 가능

아파트着工·분양時期 일원화위해

建設部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민간아

「藝總」獨立회관建物 연내마련 總22억들여 買入 增築거처 12월入住

4만여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藝總의 獨立會館建物이 연내에 서울시내 중로구동승동의 옛 서울대학교 도서관자리에 새로 서게 되었다.

새 예총회관은 현재 한국자동차회관으로 사용되고있는 4층 건물을 매입, 증축·사용하게되는데 총예산은 22억원이다.

이 가운데 20억원은 건물매입비이고 2억원은 증축비인데 7월중에 매입을 끝내고 증축공사를 거쳐 12월중에 입주하게 된다.

새 藝總會館에는 본부와 10개 협회사 무실및 회의실 휴게실 대화공간등이 마련된다.

한편 文公部는 예총의 새회관 마련에 따라 文藝振興院이 주관해오던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를 단계적으로 예총에 이관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예총지부 개최를 확대키로 했다.

文公部는 이를 위해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2억 1천660만원외에 7천28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예총은 지난 73년 世宗文化會館 건립

파트의 착공, 분양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이라도 建築審議가 끝난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韓國住宅事業協會에 따르면 정부는 각 시·도마다 모델하우스의 건립시기가 상이,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에 가건물허가를 내주는 등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택건설사업계지정업계의 개선건의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建築審議만 끝나면 모델하우스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각시·도에 이를 허용토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의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시기를 종전에 비해 2~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모델하우스를 實住宅의 구조나 규모 및 소요재질의 질 등과 동일하게 건립,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과대광고 및 허위선전을 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25개 都市계획 재정비

淸州 등 10개市 綠地 부락 住居地 전환

건설부는 광주 청주 춘천 등 전국 25개 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광주 춘천 강릉 청주 체천 고창 진안 무주 보은 수안보 등 10개 도시의 자연녹지 안에 있는 기존부락 1백44만4천2백70㎡ (43만3천여평)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며, 7개 도시(광주 춘천 강릉 청주 포천 당진 청도)에서는 41개노선 4만6천3백97㎡의 도로계획선을 폐지, 도로계획부지에서 해제했다.

자연녹지 안에 있는 부락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건축제한 행위가 크게 완화된다.

또 광주 춘천 청주 등 9개 도시에서 주거지역 안에 있는 상가시설 96만1천7백㎡ (28만8천여평)를 상업지역으로 현실화하고, 지역고시만 해놓은 채 실제

조성되지 않고 있는 6개 도시의 도시공원 37만3천7백40㎡ (11만2천여평)를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다른 공원으로 대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에 위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포천 당진 등 2개 도시의 터미널 입지를 변경하고, 청주에는 1.3km의 도시 외각 순환도로를 지정, 도심부 교통 소통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설부는 전국 2백19개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도시 중 1백20개 시의 재정비 작업을 끝냈는데, 서울은 86년 말까지, 나머지 98개 도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재정비 작업을 마치고로 했다.

아파트 造景 기준 강화

높이 2m 이상 교목 50% 이상 식수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주거밀집인 아파트 단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는 나무높이 2m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심도록 하고 이중 3분의 1은 나무높이 5m 이상, 나무넓이(수관) 2.5m 이상의 대형목을 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 0.3분의 비율로 교목을 심고 낙엽 활엽수를 50% 이상 심도록 하는 등 나무 크기에는 제한이 없고 나무 종류로만 제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이 형식에 그쳐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급수시설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도 단지내 통행로를 꽃길로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 주위는 사철 푸른 상록수를 심어 어린이들이 푸른 환경 속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했다.

庶民住宅 200만가구 건립

政府, 91년까지 小型 위주로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91년까지 도시 서민용을 위주로 2백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난이 심한 도시 서민 계층이 살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 현재 66

%수준인 주택 보급률을 91년에는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의 25.7평에서 전용면적 20평 기준으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은 20평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며 민간 건설업체에도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工場 굴뚝 높이 制限

환경청, 蔚山·溫山 지구에 첫 적용

환경청 蔚山 지구 지도점검반은 17일 蔚山 및 溫山 공단의 공해배기가스 저감 대책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오지 않았던 공장 굴뚝에 대한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앞으로 공장 굴뚝 높이를 최고 2백m에서 최하 20m로 정하고 공장 규모와 배출량에 따라 굴뚝의 높이를 정해 매연이 공공에서 분산되도록 했다.

서울市 「同居型」 더 안짓기로

1·2차분 分讓者도 設計 변경 申請 가능

서울시는 同居형이라는 새로운 아파트 구조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木동1, 2차 아파트 분양 때 설계된 同居형 아파트는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3차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同居형 아파트가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높아 3차 분양 때 同居형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일어 않을까 우려돼 취해진 것이다.

원로 建築人

古稀紀念 論文集 헌정식

김형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古稀紀念 논문집 헌정식이 7월10일 많은 후학들의 축하속에 프레스센터 프레스 홀에서 거행되었다.

본협회 추대회원이며 서울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친 김희춘 선생의 고회기념 논문집 헌정식도 7월15일 힐튼 호텔에서 하객들의 축하속에 성대히 거행되었다.